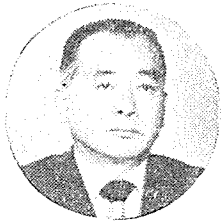


閔寬植 박사 選出 10代國會副議長에



◇ 閔 寬 植 國會副議長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인 閔寬植박사가 10代國會 與黨측 副議長으로 選出되었다.

지난 17일 開院된 國會에서 在席 1백 91명중 1백 76표를 얻어 부의장직을 맡게 된 閔박사는 野黨측 부의장인 高興門씨와 白斗鎮 國會議長을 보좌, 앞으로 10代 國會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이미 36세 때 서울출신 國會議員으로 政界에 投身 3, 4, 5, 6대를(自由黨, 無所屬, 民主黨, 共和黨)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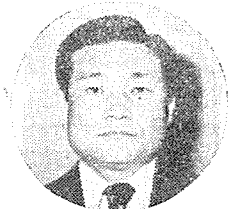
쳐 5選의원의 관록을 가진 閔國會副議長은 開城대생으로 경성고를 거쳐 서울 농대 및 日本 京都大學 農藝化學科를 졸업했으며 63년 일본 京都帝大에서 法學박사학위를 받았고 74년 명예 政治學박사(미원틀러대학), 78년 명예 藥學박사(중앙대), 명예 哲學(원광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最長壽 文教部長官 在任時에는 高校平準化를 단행, 教育革新을 기했으며 大韓體育會長, 大韓藥師會長 등을 역임, 체육계 약계 등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전개했다. 또 작년 3월에는 科總會장에 취임, 과학기술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閔國會副議長은 지금 아시아정년연구원장, 증산육영회이사장, 남북조절위 서울측위원장 대리직을 맡고 있다.

科學技術處次官에

李應善씨 승진 발령



◇ 新任 李應善 次官

政府는 15일 科學技術處次官에 李應善企劃管理室長(46세)을 승진 발령했다.

新任 李應善科技處次官은 강원도 홍천 출신으로 57년 서울대공대를 졸업하고 經濟企劃院 調査課長을 지냈으며 67년 科學技術處 創設과 함께 科技處에 몸을 담았다. 당시

34세의 젊은 나이로 國際協力局長을 역임했고, 振興局長과 研究調整室長, 企劃管理室長 等 要職을 두루 거쳤으며 8년간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과학기술 진흥정책수립, 과학기술법제정 등 科學技術 主要政策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科技處 人事異動

企劃管理室長 金知恩씨

政府는 24일 공식중인 科技處企劃管理室長에 金知恩 국립과학관장을 승진발령하는 한편 局長級 및 部

課長級 15명을 轉補發令했다.

昇進發令者 名單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전직)

- ◎ 기획관리실장 金知恩(국립과학관장)
- ◎ 원자력위원 白英鶴 (원자력 국장·승진)
- ◎ 과학기술심의관 金永旭 (정보산업국장·승진)
- ◎ 국립과학관장 金濬基 (진흥국장·승진)
- ◎ 진흥국장 林培圭(기술협력국장)
- ◎ 원자력개발국장 朴育植(기술개발관)
- ◎ 원자력안전국장 朴時烈(국립과학관연구부장)
- ◎ 정보산업국장 辛萬教(종합계획관)
- ◎ 종합계획관 金聖哲 (중앙관상대관리국장)
- ◎ 기술개발관 黃慶源 (총무국장·승진)
- ◎ 국립과학연구부장 金知汶(원자로 1과장·승진)
- ◎ 중앙관상대관리국장 高明璣(진흥과장·승진)
- ◎ 대덕단지관리사무소장 徐正萬(종합계획관리실서기관·승진)
- ◎ 총무과장 朴時夏(공진청 공보관)
- ◎ 기술협력국장 姜博光 (안전심사관)

KIMM·FIC統合

韓國機械엔지니어링 新設

韓國機械金屬試驗研究所(KIMM·所長 李春和)는 精密器機센터(FIC)와 統合, 오는 4월 1일 法院登記를 마치는대로 단일통합기구로 정식 업무수행에 들어간다.

韓國機械金屬試驗研究所는 이미 2월말 統合조정작업을 끝내고 實質的인 業務에 着手했는데 統合을 계기로 기구를 확대 조정키로하고 4월초에는 技術用役會社인 韓國機械엔지니어링會社(假稱)를 新設할 計劃이다.

KIMM은 내달중에 完工될 昌原研究所에 本部를 設置, 研究開發擔當파트(부소장 공백)와 試驗調査擔當 파트(부소장 金永澤)를 두어 重化學工業製品의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한 研究開發業務를 擔當하며 서울에는 부소장급 사무소(소장 朴守明)를 두어 FIC 기본업무를 수행토록 할 方針이다.

“全國民 科學化 운동에 主役되라”

崔科技處長官, 技術資格證授與式서 致辭

科學技術處는 10일 科技處狀況室에서 第16回 國家技術資格證授與式을 거행하고 금년도에 技術資格을 획득한 175명의 技術士에게 資格證을 수여했다.

崔鍾浣科技處長官은 이 자리에서 技術士자격을 획득하기까지의 勞苦를 致賀하고 「技術士들이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에 主役이 되어 科學精神 涵養과 科學知識 普及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技術士들은 核心的産業技術의 役軍으로서 祖國近代化와 福祉社會建設의 旗手가 될 것을 다짐하는 3個項의 決議文을 採擇하고 이를 과기처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합격된 分野別 技術士數는 다음과 같다.

- △ 機械 22명 △ 化工 12명 △ 電氣 9명 △ 通信 1명 △ 航空 1명
- △ 土木 66명 △ 建築 43명 △ 纖維 3명 △ 鑛業 4명 △ 情報處理 1명
- △ 國土開發 5명 △ 安全管理 1명 △ 産業應用 7명 △ 金屬·電子·造船·에너지·海洋·生産管理分野는 합격자 없음.

科技處職制 일부改編

原子力局을 2局으로 分離

科學技術處는 職制 一部를 改編 原子力局을 原子力 開發局과 原子力安全局으로 分離, 改編하고 原子力開發局에 企劃課, 原子力開發課 및 原子力協力課를 두며, 原子力安

全課에는 原子力安全課, 原子爐 1課 및 原字爐 2課를 각각 新設키로 했다.

이같은 職制改編은 이미 3월 2일 열린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친 것으로서 이 改正令이 公布 發效되는 대로 본격적인 業務를 遂行토록 할 方針이다.

全國科學展覽會에 生活科學部門 新設

國立科學館(관장 金濤基)은 가정

비엔나서 科學技術情報展示會 개최 科技處 民間業界 大舉 참여시키기로

科學技術處는 오는 8월 20일부터 10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UN 開發을 위한 科學技術會議(UNCS-TD)總會와 함께 開催될 科學技術情報展示會에 民間業界의 積極적인 參與를 바라고 있다.

國際 技術交流를 위해 열릴 이 전시회에는 주로 科學技術關係 圖表와 模型 등이 전시되는데 科技處는 이 기회에 우리나라 科學技術 發展相을 對外에 널리 소개할 수 있도록 할 方針이다.

事業계획·豫算 확정 民間研究所 설립 推進協議會

지난 2월 設立을 本 民間研究所 設立推進協議會(會長 許愼九)는 3월 2일 프라자 호텔에서 第1次理

事會를 열고 事業計劃 및 豫算規模 등을 確定했다.

이날 理事會에서는 民間研究所를 設立해야 하는 52개 業體의 총 投資額을 2천 7백 29억원으로 設定하고 이중 1천 8백 5억 6천 6백만원을 內資로, 9백 24억원을 外資로 조달키로 했다.

主婦賞으로 新設될 이 生活科學部門에는 여성들만이 출품할 수 있는데 생활주변에서 생활개선 및 합리화를 위해 개발된 아이디어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主婦賞 特賞은 1명에 50만원이고 優秀賞 3명은 각 5만원씩이다. 出品原書 배부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다.

出品申請은 일반인이나 주부들의 작품인 경우 서울 과학관에서 직접 받으며 교사와 학생작품은 각 市道教育委員會나 地方學生科學館에서 접수한다.

主婦賞으로 新設될 이 生活科學部門에는 여성들만이 출품할 수 있는데 생활주변에서 생활개선 및 합리화를 위해 개발된 아이디어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主婦賞 特賞은 1명에 50만원이고 優秀賞 3명은 각 5만원씩이다. 出品原書 배부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다.

出品申請은 일반인이나 주부들의 작품인 경우 서울 과학관에서 직접 받으며 교사와 학생작품은 각 市道教育委員會나 地方學生科學館에서 접수한다.

아인슈타인誕生 100周年紀念

新聞會館·鶴山技術圖書館서 講演會

今世紀의 위대한 物理學者이며 思想家이기도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誕生一百周年을 맞아 국외에서는 물론 國內에서도 갖가지 紀念行事가 벌어졌다.

韓國物理學會는 14일 新聞會館講堂에서 東洋放送·中央日報와 함께 紀念講演會를 마련, 20세기 現代科學의 흐름을 바꿔놓은 아인슈타인 박사의 生涯와 業績을 거렸다.

이날 講演會에서는 尹世元 박사(前韓國물리학회장)의 “科學에는 國籍이 없는가”와 趙炳夏박사(한국 과학원교수)의 “相對論과 現代宇宙論”에 대한 講演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尹世元박사는 「아인슈타인의 생애가 “科學에는 國籍이 없는가”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인슈타인이平生 4개국 國籍(獨·瑞西·獨·美)을 갖게 되었던 것도 科學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유대인태생인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스위스의 취리히공대에 적을두면서 스위스로 국적을 이적, 광전효과이론, 상대성이론 등 화려한 이론을 꽃피웠고 다시 독일로 건너가 백림대학교수로 제직하면서 독일로 국적을 옮겼으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스에게 추방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1955년 죽을때까지 미국국적을 갖고 있었다.

尹박사는 「人類의 歷史가 存在하는 한 아인슈타인의 理論은 영원히 傳承될 것이며, 그의 理論은 理解할 수 없다고 해도 그의 뜻(思想)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몇가지 逸話를 소개했다. 아인슈타인은 영국 수상인 랫셀경과 “랫셀 아인슈타인 평화선언”을 공포한 平和主義者이나 2次大戰 當時 히틀러의 위협을 받아 美國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탄원하여 원자탄을 생산하게 한 장본인으로 人類와 學問을 위해서 Paradox를 범하기도 했으나, 初代이스라엘대통령을 지낸 바이즈만이 아인슈타인에게 2代大統領職을 맡으라고 했을때 ‘科學을 위해서는 살아도 한나라 만을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면서 대통령직을 사양했을 정도로 科學精神이 강한 科學者였다고 강조했다.

尹박사는 論題에 대한 結論으로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발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一般相對性理論을 당시 敵國의 科學者인 英國의 에딩톤박사가 日蝕觀測으로 일만상대성이론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독일 나치스당원인 테나할드가 발표한 光電效果理論을 유대인태생인 아인슈타인이 證明하여 理論을 전개했다는 점을 지적, 「科學者에게는 國籍이 있으나 科學에는 國籍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科學著述人協도

한편 韓國科學史學會와 韓國科學著述人協會도 3월 17일 鶴山技術圖書館강당(舊서울대 文理大)에서 아인슈타인 誕生 100周年紀念 講演會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講演主題와 演士는 다음과 같다.

△ 아인슈타인과 宇宙論(閔英基

國立天文臺長)

△ 相對論以後의 物理學(金貞欽 高大物理學科 教授)

△ 相對性 理論의 哲學的意義(李初植 建大哲學科 教授)

△ 社會改革者 아인슈타인(張會翬 서울大物理學科 教授)

'79韓國機械展 10월 12일 開幕

'79韓國機械展이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여의도 機械工業振興會館에서 개막된다.

商工部 主管, 韓國機械工業振興會 主催로 개최될 이번 기계전에는 세계각국의 바이어를 대거 招請, 韓國機械類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과시하는 한편 國產機械類에 대한 弘報業務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그런데 77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되었던 '77한국기계전에는 관람객만도 무려 40여만명이 동원되었고 현지 輸出契約만도 3백 30만불 國內契約 130억원등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5부1室 14課로 機構확대 韓國機械工業振興會

韓國機械工業振興會는 業務의 效率化와 機械類의 輸出支援態勢 強化를 위해 종전 4부 12課에서 調查部, 弘報室, 展示課, 輸出課를 新設 5부 1室 14課로 機構를 擴大 改編했다.

새로 신설된 調查部에는 調查1課 調查 2課, 資料課를 두고 振興部에 展示課와 輸出課를 새로 신설하는 한편 副會長直屬으로 弘報室을 설치했다.

7개學會 新規加入 승인

科總理事會議決, 총 149개 團體로 늘어

한국곤충학회 등 5개 학회와 2개 협회가 科總會員으로 新規 加入했다.

科總理事會 議決에 따라 7개 학회가 새로 가입됨으로써 科總산하 學會 및 團體는 총 149개로 늘어났다. 새로 가입한 學會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회원수 및 회장명)

◇한국곤충학회(127명, 高濟鎬)/학회 사무실: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곤충연구소

◇한국유전학회(234명, 白龍均)/학회 사무실: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문리대 생물학과

◇한국통신학회(215명, 趙鼎鉉)/학회 사무실: 중구 봉래동 1가83 광복빌딩 506호

◇한국낙농학회(269명, 陸鍾隆)/학회 사무실: 수원시 서문동 서울농대낙농학과

◇한국수의보건학회(201명, 申光淳)/학회 사무실: 중구 충무로 3가50번지 서울보건 전문학교

◇한국기술용역협회(83개 업체, 全民濟)/협회 사무실 과학기술회관206호

◇대한보건의학회(419명, 權彝赫)/협회 사무실: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보건대학원 426호

纖維工學會 定總 을事業計劃 승인

韓國纖維工學會(會長 盧鳴翼)는 2월 23일 科學技術會館 講堂에서 79年度 定期總會를 열고 78年度 事業實績 및 決算案을 承認하고 79年

度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審議 通過시켰다. 또한 이날 總會에서는 定款一部를 改正, 事務局條項을 新設키로 했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金魯洙 교수(서울공대)에게 功勞賞을, 姜敎熙 부사장(태화방직<주>)과 金熙山 상무이사(코오롱상사<주>)에게 技術賞을 그리고 高錫元 교수(서울공대)에게 學術賞을 施賞하고 총회가 끝난다음 「化纖工場의 設計基準說明會」를 가졌다.

會長에 林迎春씨 農工學會 定總서 選出

韓國農工學會는 2월 24일 農業振興公社 서울사무소에서 79年度 定期總會를 열고 會長에 林迎春씨(농업진흥공사 부사장겸 농지 확대개발 기술단장), 副會長에 金始源씨(전대 농과대학장), 李基春씨(전북대 농대교수), 鄭鎮鎬씨(농업진흥공사 이사)를 각각 選任하고 理事21명과 監事 3명도 改選했다.

한편 이날 總會에서는 쌀增產王인 이광섭씨의 성공사례를 담은 "綠色革命의 일꾼"이라는 記錄映畫를 上映하기도 했다.

蠶絲業의 課題 심포지움 韓國蠶絲學會, 貿易會館서

韓國蠶絲學會(會長 崔炳熙)는 23일 貿易會館에서 "轉換期 蠶絲業의 課題와 對策"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開催했다.

이날 심포지움의 主題와 演士는 다음과 같다.

克服하는 農業構造下에서의 蠶絲業의 位置와 方向...金東熙(農村經濟研究院)

蠶業經營의 改善方向...崔炳熙(서울농대)

蠶발基盤의 立地條件 및 生産性 提高...林秀浩(蠶試)

善蠶技術普及上의 問題點과 對策...李相豐(蠶試)

고치의 流通構造改善...金成勳(中大農大)

技術士 招請 歡迎會 技術士會, 資試合格者에

韓國技術士會(會長 李獻卿)는 10일 第16回 技術士資格 試驗에 합격한 技術士 175명을 招請, 歡迎會를 開催하고 午餐을 배려했다.

자격증수여식이 끝난 뒤 열린 이날 환영회에는 崔鍾澆科技處長官을 비롯한 元老技術士들이 참석, 이들의 資格取得을 축하해 주었다.

韓國科學技術 30年史 編纂委員會 예비회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3월 5일 科總會議室에서 韓國科學技術 30年史 편찬위원회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편집 방향을 비롯한 事業計劃案을 中점 論議했다.

金東一부위원장의 主率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科技 30年史 편집의 기본방향을 史學的이고 專門的이며 總括的인 力點을 두고 通史와 分科別各論으로 구분하여 各論은 간소화하고 科學技術史의 分野別 年表를 資料로 계제키로 하는案을 수립키로 했다.

이 案에 따르면 자료수집은 분야별로 작성한 年表에 考證된 것을 참고로 하여 수집 보완하고 年表作成은 분야별로 간단히 해설하며 분야별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考證資料를 명기하며 분야별로 주요인적 사항을 명기토록 했다.

中學校 基礎技術教育강화

文敎部, 83년 까지 技術敎室신설 운영

文敎部는 基礎技術敎育의 強化를 위해 오는 8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技術敎室」을 新設, 運營키로 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기술교육강화방안에 따르면 금년에는 市·郡 敎育廳 단위 1개교 및 工業團地 대도시 주변 학교등에서 66개교를 選定, 學校別로 男子中學은 4백 17만 6천 9백 원, 女子中學은 3백 68만 9백 원씩을 지원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고 80년도에 도시지역중학교 310개교, 81년도에는 面지역의 중학교 430개교 82년도에는 面지역 중학교 544개교 그리고 83년도에는 面단위 이하의 나머지 중학교 650개교에 각각 기술교실을 설치키로 했다.

技術敎室에는 製圖실습 木工實習, 機械金屬實習, 電氣電子實習, 衣生活實習用 多目的作業臺와 映寫資料工具, 캐드, 기능실습 교재등을 갖추어 실기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韓國漢醫 30명 參席 파리 世界鍼灸學術大會에

오는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파리에서 개막될 第6次 世界鍼灸學術大會에 우리나라 漢醫師 30여명이 참석, 20편의 論文을 發表할 예정이다.

大韓漢醫師協會는 2월말 현재 이미 20명의 참가 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한 바 있는데 오는 3월말까지 참가희망자의 신청을 받고 발표할 논문제목 및 발표자를 선정키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世界醫學界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漢藥을 主題로한 特別프로그램이 마련돼, 大會마지막날인 22일에는 한국대표단 주관으로 「漢藥에 의한 疫病治療法」에 대한 세미나가 開催된다. 프랑스 세계질주대회 準備委는 이미 이와같은 사실을 한국측에 알리고 한국 대표단에 主題發表를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번대회에서 주로 △ 신경마비 △ 부인과 △ 류마티스 △ 순환기장애 △ 소화기질환 △ 피부 △ 피로 等의 臨床研究 및 기타 基礎分野의 研究論文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同大會의 명예회원으로 李錦浚 대한한의사협회장, 金定濟 경희대한의과대학장, 李昌彬前원광한의대학장 等 3명을 추대했다.

循環器센터 設立 聖바로로 病院에

韓·日間의 醫療技術協力에 따라 韓國循環器센터가 가톨릭 중앙의료원 부속 성바로로 病院에 設立된다.

3월중 正式 發足될 예정인 同센터는 日本國際技術開發協力會(JIGA)로부터 日貨 3억 円 상당의 循環器관계 醫療器材를 無償으로 원조받게 되는데 한·일간의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전문가초청, 훈련생과 견연수등 의학교류도 실시한다.

동센터 初代所長에는 가톨릭醫大 內科 金三濤교수가 內定됐다.

數値制御工作機械 講習會 在日 東洋經濟日報 주최

日本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일한 在日同胞經濟紙인 東洋經濟日報社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數値制御工作機械講習會를 日本의 日立精機株式會社의 協賛으로 3월 7일부터 사흘간 한국 디자인포장센터에서 開催했다.

이 강습회에서는 日立精機 技術部長이며 NC工作機械關係中央技能檢定委員인 若杉晃市씨가 數値制御(NC)工作機械의 原理와 構成 및 導入計劃 등 수치지어의 기초이론 전반에 대해서 강연했으며 NC 旋盤 2級技能士이며 日立精機の 機械課技術員인 岡本準二씨가 NC 프로그래밍과 함께 4NE-600 Tuning Center에 의한 切削實習을 맡았다.

한편 主催側은 이번강습회를 韓國機械工業의 發展과 技術革新에 기여하고자 實施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강습회를 자주 마련해 국내기계공업계와의 교류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강습회에는 46개업체 80여명이 참가했다.

어린이 會館 無料開放 4월 21일 科學의 날에

어린이 大公園안에 자리잡은 어린이 會館에서는 오는 4월 21일 제 12회 “科學의 날”을 맞이하여 당일 하룻동안 모든 관람객들에게 어린이 會館을 無料로 開放, 科學館과 文化館을 公開키로 했다.

또 이날은 初中高生들을 위하여 어린이 會館에서 플라모델을 제공하여 각자가 조립하는 第1回 科學 모델조립대회를 開催하고 오후 5시부터는 天體科學館에서 中·高等學生과 一般人들을 위한 第4回 별觀測會도 개최할 계획이다.

電氣自動車 개발에 成功

KIST 金章鎬博士팀, 試運轉 끝내

電氣를 動力源으로하는 電氣自動車가 國內 最初로 開發돼 無公害交通手段으로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

KIST 金章鎬 박사팀이 작년부터 개발에着手, 지난 3월 2일 성공리에 試運轉을 마친 이 전기자동차는 휘발유나 가스 대신 20kW의 電氣모터에서 얻어지는 動力을 직접 차바퀴에 연결하도록 제작되어 내연기관의 각종 부속장치가 하나도 없어 運轉이 간단하며 기름자동차에서 야기되고 있는 배기가스에 의한 公害가 전혀 없다는 큰 잇점을 갖고 있다. 또 燃料費도 가솔린자동차가 1km에 20원인데 비해 6원정도밖에 안 들어 운행비가 저렴할 뿐 만 아니라 熱效率도 가솔린엔진이 15~20%인데 비해 75%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다. 그리고 차가 달릴때의 소음이 油類자동차의 1/2인 30폰정도 밖에 안돼 거의 소음없이 달릴 수 있으므로 대도시의 자동차 소음공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자동차 내부는 엔진이나 연료장치, 냉각장치 등 부속장치가 하나도 없고 다만 각종 장치가 있던 자리와 워트링크에 動力源인 배터리가 들어있으며 뒷자석 한구석에 電流의 흐름을 조정하는 컨트롤러가 있다. 운전대 앞의 계기는 운전중 전류를 나타내는 전류계와 배터리의 電氣蓄電量을 나타내는 전기용량계와 속도계만이 있다.

이렇듯 운전에서 가장 복잡한 기여와 클러치가 없이 설계되어 있어 운전조작이 지극히 간단해 전진,

후진 스위치의 가속페달 브레이크만 작동하면 되고 가속페달로는 전기저항을 조절, 속도를 조정하게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20도 정도의 경사진 비탈길도 쉽게 오르도록 설계해 가파른 고개를 제외하고는 포장도로나 지방도시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다.

이 전기자동차는 16개의 대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充塲시키면 105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最大速度는 時速 50km.

이 연구는 작년에 착수한 이래 그동안 開發費로 4천 5백만원이 들었으나, 日本이 71년부터 6년동안 개발비로 쓴 5억엔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연구비로 개발했다는 것이다.

KIST는 전기자동차의 전문설계가 완성돼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착수하게 되면 현대 出庫되는 기름자동차보다 가격이 훨씬 쌀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高性能 蓄電池와 高速 電動機 그리고 가벼운 車體가 개발된다면 전기자동차는 미래의 주요 차종으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本誌 編輯委員會 개최 7월부터 有價化 검토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13일 79년도 제 1차 “과학과 기술”誌 編輯委員會議를 소집, 月刊 有價誌發刊計劃(案)을 심의했다.

編輯委員 10명 전원이 참석한 이

날 會議에서는 月刊 有價誌發刊 계획과 현재 發行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誌 內容 및 編輯方向을 중점 논의하고 有價誌發行은 充分한 準備기간을 두고 計劃을 세워 오는 7월부터 發行할 것을 檢討키로 했다.

醫療工業技術開發 세미나 KIST醫療工業研주최

韓國科學技術研究所(所長: 千炳斗)는 금년부터 長期大型研究課題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醫療工業技術(Biomedical Technology) 開發에 관한 세미나를 開催하고 우리나라 醫療技術의 향상을 위해 의료기구의 國產化가 시급함을 감안, 「醫療裝備의 國產化長期計劃」을 樹立, 國산의료기구를 年次的으로 개발 발전시키기로 했다.

2월 22일 KIST 醫療工業研究會 主管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研究 Project趣旨에 대한 說明이 있는 후 洪彰義 박사(서울 醫大教授)의 「醫療技術의 發展과 醫療産業」, 朴龍輝 박사(가톨릭 醫大 醫學部教授)의 「韓國綜合病院에서의 醫療電子器機利用現況과 展望」, 洪勝弘 박사(仁荷工大 電子工學科 副教授)의 「醫療工業技術의 現況과 展望」等 招請講演이 있었고 이어서 綜合討議에 들어갔다.

綜合討議에서는 醫療保險의 확대 실시등으로 醫療需要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醫療機關에서는 醫療기구의 이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지금까지 外製醫療器具의 도입으로 막대한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國산화된 의료기구도 성능면에서 실수요자에게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기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타개책이 논의되었다.